

문화

창단 30주년 맞은 '놀이패 신명'

해학·풍자로 시대를 노래한 '30살 광대'

“힘든 시절 이겨내게 만든 건 사람과 작품”

23~31일 아카이브전, 포럼·기념공연 개최



창단 30년을 맞은 놀이패 신명의 전·현직 회장인 박강의·윤만식·김호준(사진 왼쪽부터)씨가 22일 아카이브전이 열리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스튜어트 리 앨런 '악마의 정원에서' <생각의 나무 권>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결국 먹고 사는 일이다. 먹는 것 자체가 풍족한 요즈음, 식탁이 의외로 초라하다면 열에 아홉은 다이어트 때문이다. 현대인은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 기꺼이 먹는 즐거움을 희생한다.

하지만 금기를 깰 때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고 하니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최상의 맛을 선사할 지도 모른다.

인간의 본능을 잘 이해한 음식의 과거사는 수백 가지의 평범한 음식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 책은 에덴동산의 사과에서부터 푸아그라에 이르기까지, 음식이라는 원초적인 쾌락이 죄가 될 때 생겨나는 희한한 이야기들을 단테의 7대죄인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냥 오래전 미개한 종족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알게 모르게 시대마다 번제물이 있었다.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할 때에는 노동자가, 격변기 정치 속에서는 민주투사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그 희생자였다.

지금은 경기 불황 여파로 취업을 못한 청년들과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4·50대의 직장인들이 아닌가 싶다. 경쟁자의 뇌와 살을 먹어야 그나마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경제적 구조 속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는 죄의식조



먹고 먹히는... 현대는 거대한 식인사회

색육, 폭식, 오만, 나태, 탐욕, 불경, 분노로 나누어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풀어낸다.

21세기에 가장 금기시한 음식은 '인육'이다. 다소 섬뜩한 이야기지만 얼마 전 새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선족 살인자의 기행은 중국의 인육시장 역사까지 들추게 했다.

식인 역사는 고대부터 있었다. 예를 들어 아스테콧족은 희생 제물을 사회 계급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심장은 태양신에게 바쳐졌고, 고기는 귀족들에게 돌아갔다. 머리는 성직자들의 몫이었다. 성직자들이 머리로 무엇을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를 먹었을 거라고 고고학자들은 추측한다. 이렇듯 뇌를 먹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를 '내적인 식인자'라고 칭하고 육체의 강한 힘을 얻기 위해 건강한 사내의 근육을 먹는 자를 '외적인 식인자'라고 한다.

차느릴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기에 현대는 거대한 식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름끼치는 것은 번제물을 향유할 신이 없다는 데에 있다. 오래전에 신이 죽었다고 니체가 외쳤지만 그에 달하는 대체물이 없었다. 즉 실체가 없는 이미지만 범람해서 인간을 조종하도록 내버려두었다. 그 이미지의 편린 속에 인간은 서로 잡아먹고 먹히다가 스스로를 먹어치웠다.

결국은 종족을 잡아먹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실없이 웃는 사람을 뜻하는 레광맨이 된다. 이 인위적인 정원은 거짜로 포장된 것이 많아 진정한 맛조차느릴 수 없다.

미감의 쾌락을 회복하는 일이 금기인 것을 행할 때 느끼는 죄의식이라면 현대라는 또 다른 정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실로 금기해야하며 또 그 금기를 왜, 절실하게 깨뜨려야 하는지 묻고 답할 수 있는 마음의 휴식을 가져야만 진정한 죄의식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차노휘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비엔날레 작품 같이 만들어요”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5일까지 참여작가인 대만 출신 준양(Jun Yang)씨의 작품 제작에 참여할 지

역민을 모집한다. 준양씨는 비엔날레 기간 대안아트 마켓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잡지(DAM·a magazine about/with Daein Art Market)를 작품으로 내놓을 계획으로, 실릴 기사를 함께

만들 지역 작가·편집자, 통역자 등을 모집해 타블로이드판 잡지(4면)를 제작 예정이다. 비엔날레재단은 또 브라질 출신 작가 모니카 나도르(Monika Nador)의 작품 '액션 인 코리아'

대만 출신 작가 준양씨·브라질 모니카 나도르

시민·지역작가·편집자·통역자 등 모집

(Action in Korea) 제작에 참가할 시민들도 모집한다. 모니카 나도르는 도시 개발로 소외된 계층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2주에 걸쳐 제작, 비엔날레 전시관 경사로 등에 내걸 구상이다.

작품 제작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음달 1일까지 12일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작가와 스텐실 작업을 진행한다. 문의 062-608-4331.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30th Anniversary. Features a 30% OFF SALE, international flag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Bokgodang Hanjaksang. Promotes health benefits of ginseng and offers a special price for 6-year-old ginseng (60포 → 15만원).